

<춘향전>과 <쭈옌 끼에우>의 주제 비교 연구

MA. Tran Thi Bich Phuong

University of Languages & International Studies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anoi

Abstract

This study is focused on making analysis the topic of *Chunhyangjoen* and *Doan truong tan thanh (Truyen Kieu)*. The purpose is to find out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two this works and answer the question that what does the time have effect on an author's awareness and resolution of issues in a literary work.

1. 문제 제기

문학작품은 시대의 반영이다. 작자가 원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의 작품 속으로 시대적 분위기가 스며들어있다. 그래서 그런지 비슷한 시기의 비슷한 역사적·사회적 환경에서 산 작자들이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고 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문학작품은 유사한 점이 발견된다. <춘향전>과 <쭈옌 끼에우>의 경우는 역시 그렇다. <춘향전>과 <쭈옌 끼에우>의 작자가 지리적 거리 때문에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고 하였던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두 작품을 비교 읽어보면 어렵지 않게 그들의 유사점을 발견하게 된다.

본고에서 <춘향전>과 <쭈옌 끼에우>를 주제의 측면에서 비교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해내고 역사적 사회적 시대적인 배경을 연관시켜 논의하고자 한다.

2. <춘향전>과 <쭈옌 끼에우>의 주제 비교

<춘향전>과 <쭈옌 끼에우>는 나온 지 2백여 년 지났을 만큼 두 작품에 대한 연구가 엄청나게 많다. 그 중에 두 작품의 주제에 대한 연구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작품의 주제에 대한 연구자들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다. 하나는 작품을 접근하는 관점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며 또 다른 하나는 작품의 주제를 연구할 때 어떤 텍스트를 연구 대상으로 선택했는지에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춘향전>은 판소리계 소설과 마찬가지로 유동의 문학이며 적층의 문학이라서 이본의 수가 현저히 많을 뿐만 아니라 각각 수정되고 변개되는 양상 또한 다양하다¹¹⁵. 그래서

¹¹⁵김현양, 이다원, 「춘향전의 구성 양상과 주제 해석과의 상관성」, 설성경 편, 『춘향전 연구의 과제와 방향』,

이본에 따라 (공통된)일반적인 주제는 물론, 독특한 주제도 나타낸다. 본고에서 구자균이 교주한 <烈女春香守節歌>를 대상 텍스트로 삼고 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쭈옌 끼에우>의 경우에는 이본도 상당히 많은데 각 이본은 문자적 차이는 문제가 안 되는데 <쭈옌 끼에우>의 문구(文句) 그 자체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된다고 본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응웬 타익 장 (Nguyen Thach Giang)이 교주한 <똌 쯤엥 떤 타잉 (Doan trung tan thanh 斷腸新聲)>¹¹⁶을 대상 텍스트로 삼고 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말한 듯이 <춘향전>과 <쭈옌 끼에우>의 주제를 살펴볼 때 주로 텍스트 내적 내용에 근거하되 역사적 사회적 시대적인 배경과 연관시켜 논의하도록 한다.

2.1. 수절에 대한 인식

가. 사랑과 행복을 보증수단으로서의 수절

제목이 보여주는 것처럼 춘향의 수절을 다룬 것이 <열녀춘향수절가>의 중요한 주제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다룬 수절은 전통적 수절과 다른 새로운 내용이 담겨있다. 춘향이 봉건사회의 보수적인 덕목을 지키기 위해서 정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향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물론 정절을 지키기 위해 춘향은 “烈不更二夫”라는 (보수적인)전통적인 윤리에 근거를 두고 변학도의 수청 요청에 항거하였는데 춘향의 ‘일부종사’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있다. 춘향의 ‘일부종사’가 마음 없이, 사랑 없이 의무로서만 남편을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믿으면서 ‘동고동락(同苦同樂)’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생불여사”라고 형벌을 받을 마음까지 준비하고 있었다. 춘향의 그러한 태도를 통해서 춘향에게 수절은 삶의 진리임을 알 수 있게 된다. 춘향이 바라는 삶은 물질적 넉넉함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춘향이 “獨宿空房”을 무서워하면서도 변학도의 수청 요청에 항거한다. 그녀는 스스로 변학도의 수청 요청에 항거하는 것이 승리를 거두지 못할 일임을 알면서도 끝까지 항거한다. 춘향에게 수절은 행복을 보증해주는 수단이다. 춘향의 수절이 전통적인 덕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도령을 위한 사랑과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이 수재는 경성 사대부의 자제로서 문명귀족 사위가 되었으니 일시 사랑으로 잠깐 노류장화하던 너를 일부 생각하겠느냐”라고 하는 변학도의 말에도 춘향은

국학자료원, 2004.

¹¹⁶처음에응웬주 (Nguyen Du)가자기의작품을<똌쯤엥떤타잉 (Doan trung tan thanh, 斷腸新聲)>이라고이름을지었는데후세의사람들이응웬주가 개작한 靑心才人의 <金雲翹傳>을 상관해서 그 작품을 <쭈옌김빈끼에우 (Truyen Kim Van Kieu, 金雲翹傳)>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작품의 여주인공 이름을 따서<쭈옌튀끼에우 (Truyen Thuy Kieu, 翠翹傳)>라고 부르기도 하고<쭈옌끼에우 (Truyen Kieu, 교전)>라고도 불리왔는데 <쭈옌끼에우>라는 제목은 일반화되어 버린다. 그렇지만 Tran Nho Thin의 견해처럼 작자가 자기의 작품에게 한이름을 부여하는 행위는 그냥 작품을 부르기위한 것이아니라 작자의 의도, 즉작자가하려는말을 담겨이름을 지어준 것이다. (Tran Nho Thin, Van hoc trung dai Viet Nam duoi cai nhin van hoa, Nha xuat ban Giao Duc, 2000). 그래서 응웬주의<쭈옌끼에우>는 <똌쯤엥떤타잉>으로 불려야 타당하다고 본다.

마음이 조금도 움직이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춘향에게 수절은 ‘일부종사’ 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바로 자기의 사랑과 선택에 대한 믿음을 위한 것이다. 과연 춘향의 믿음은 현실이 되었다. 이도령이 춘향을 잊지 않고 과거에 급제하여 암행어사가 되어 춘향을 세간 지옥에서 구해준다. 결국 춘향이 이도령과 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으로부터 정렬부인이라는 품위를 부여받게 된다. 춘향이 임금으로부터 정렬부인이라는 품위를 받게 된 것을 근거로 보면 <열녀춘향수절가>의 춘향의 수절은 결국 전통적 수절 관념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너희 같은 창기배게 수절이 무엇이며, 정절이 무엇이다. 구관은 전송하고 신관 사또 연접함이 법전에 당연하고 사례에도 당당커든 고이한 말 내지 마라. 너희 같은 천기배게 충렬이차 왜 있으리.”라는 회계 나리의 말을 근거로 보면 춘향이 변학도의 수청 요청에 응하지 않고 끝까지 완강하게 항거한 것은 임금이나 봉건사회의 질서에 기쁜 일이 아니고 절대로 찬양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춘향의 그러한 행위는 법전에서 규정한 것들에 어긋나서 봉건사회의 질서를 혼란하게 한 것이기 때문이다. 임금이 춘향의 수절을 찬양한 것이 법전의 인정을 받은 사례가 아니라 개별 개인의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봉건사회의 최고 대표자로서의 임금이 수절은 사회가 정해놓은 덕목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별 개인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행위임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춘향의 수절은 바로 사랑과 행복을 보장해주는 수단이 된다.

춘향과 마찬가지로 <단 쓰영 편 타잉>의 튀 끼에우 (Thuy Kieu)의 정절과 수절은 전통적 정절과 수절의 관념과는 다르다. 튀 끼에우는 세상 사람들의 찬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정절을 지킨다. 튀 끼에우의 정절에 대한 태도는 자기가 호금 (胡琴)을 연주하는 것을 듣는 김 쩡 (Kim Trong)이 부정한 행위를 취하려고 했을 때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

[취교가] 말하네, “그렇게 장난치지 마세요,
 저만치 떨어져서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한 그루 보잘없는 요도 (夭桃)가,
 홍원 (紅園)에 청조 (靑鳥)가 날아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이미 형포 (荊布)가 된 몸,
 종부의 도리로써 정절 (貞節)이 최우선이지요.
 상간복상 (桑間濮上)[의 여인처럼] 행실이 부정하다면,
 그런 사람을 도대체 누가 원하겠어요!
 순간의 정욕에 이끌려 버린다면 그건,
 백년의 정절을 하루아침에 저버리는 일이에요!
 고금 기우 (寄寓)의 인연을 생각해 보건대,

어울리는 한 쌍으로는 그 누가 최장 (崔張)만 하겠어요.

[그렇지만] 운우 (雲雨)가 금석 (金石)을 무너뜨리니,

도가 지나쳐 연앵 (燕鶯)은 서로 싫증이 나고 말았죠.

비익 (比翼), 연지 (連枝)와 같이 다정스럽다가

마음 한 구석에서 경시하는 마음이 짝튼 것이지요.

서상 (西廂)에서 맹세하며 피운 향이 싸늘하게 식어버려,

도탑던 인연은 부끄러운 인연이 되고 말았죠.

먼저 북 (梭)을 던져 [정절을] 지키지 않고서,

훗날 그대에게 부끄럽게 된다면 누구 탓이겠어요?

왜 그리 급히 화류를 강요하시나요?

언젠가 제가 은혜에 보답할 날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¹¹⁷

튀 끼에우가 정절을 지키느라 킴 쩡에게 몸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청심재인 (靑心才人)의 김운교전 (金雲翹傳)의 취교 (翠翹)처럼 천고의 정절의 본보기가 되려고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킴 쩡의 인연이 최장 (崔張)의 인연처럼 깨질까봐 걱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춘향과 마찬가지로 튀 끼에우에게는 수절은 자기의 사랑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행위다. 그것은 마 잠 썩에게 몸을 팔 때 하는 튀 끼에우의 생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선품 (仙品)이 비천한 자의 수중에 떨어졌으니,

누군가를 위해서 햇빛과 비를 피한 일이 허사로구나!

이 몸이 전락하는 지경이 될 줄 알았더라면,

도예 (桃藥)를 차라리 사랑하는 이로 하여금 꺾게 할 것을!”¹¹⁸

그녀의 이러한 생각이 여성에게 개별 개인의 행복과 감정을 억누르고 정해진 질서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만 요구하는 봉건사회에 얼마나 위험할지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의 베트남 유가들이 튀 끼에우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런데 15년간의 수난을 겪고 난 그녀는 킴 쩡을 다시 만나 킴 쩡과 결혼하라고 가족들이 권하기에 마지못해 승낙했는데 남은 정절을 지키느라고 육체적 관계를 안 가지기로 한다. 왜 튀 끼에우가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까? 튀 끼에우가 늘 간직했던 정절을 알아야 이 대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사랑과 행복의 보증수단으로서의 수절의 장애

춘향과 튀 끼에우가 간직하는 수절은 모두 다 (보수적인)전통적인 수절의 관념과

¹¹⁸앞책, 87-88쪽.

¹¹⁷완유 (阮攸) 저, 최귀복역, 『취교전 (翠翹傳)』, 소명출판, 2004, 57-59쪽. 이후의<단쓰영편타앵>의 인용문은 이 책을 따라한다. 다만 이 책의 번역과 필자의 의견이 다를 경우 필자의 의견을 밝히도록 한다.

¹¹⁹앞 책, 87-88쪽.

색다르다. 그들의 수절은 봉건사회가 정해놓은 덕목과 질서를 의무로서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별 개인의 사랑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행위다. 그런데 봉건사회에서 산 그들이 자기의 지향을 실행하는 데에 장애를 겪을 수밖에 없다. 춘향이 ‘일부중사’를 하느라고 수절한다고 하는데 회계 나리가 하는 말처럼 그녀에게 그러한 자격도 없고 그러한 권리도 없다. 여성에게 수절을 요구했던 유교의 사회에서 왜 춘향이 수절하면 안 되는가? 춘향이 비천한 신분을 갖기 때문인가? 비천한 여자에게 수절을 요구하지 않지만 수절하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바로 춘향의 미모(美貌)다. 만약에 춘향이 예쁘지 않으면 수절하든 안 하든 변학도에게는 상관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춘향의 미모는 명성이 경성까지 퍼져나갈 정도로 예쁘다. 변학도가 서울에 있을 때부터 벌써 춘향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춘향이 기생인 줄 알고 도입하자마자 기생점고(妓生點考)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춘향은 기생이 아니고 이도령과 인연을 맺었고 수절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청 들라고 요구했다. 여기서 춘향이 수절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것은 바로 춘향의 미(美)라고 할 수 있다. 봉건사회에서 여자의 미는 오히려 그 여자에게 화를 가져올 수 있다. 역사가 보여준 것처럼 봉건사회에서 서양이든 동방이든 여성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법률이 없어서 예쁜 여자가 늘 권력이 있는 자나 돈이 있는 자의 사고 팔고 다투는 물건이 되어왔다.

춘향과 마찬가지로 튀 끼에우가 정절을 지키지 못하게 한 원인 중의 하나는 바로 튀 끼에우의 재색(才色)에 있다. 만약에 튀 끼에우가 재색이 없었다면 여자를 사서 청류에서 몸을 팔게 해서 돈을 버는 것을 생계로 하는 마 잠 썩(Ma Giam Sinh)이 튀 끼에우를 사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계산하는 것을 들어보면 알 수 있게 된다.

속으로 좋아하네, ‘깃발이 수중에 있지,
 옥 같은 자태를 보면 볼수록 마음이 취하는 걸.
 국색천향(國色天香)이니,
 일소천금(一笑千金)이란 말 그릇되지 않군.
 일단 데려다 놓으면 먼저 꽃을 꺾겠다고,
 왕손귀객(王孫貴客)들이 틀림없이 서로 다투겠지.
 적어도 삼백 냥 이상일 것은 틀림없으니,
 일단 자본금을 뽑은 후로는 이익이렸다.’¹¹⁹

청류의 주인인 뚜 바(Tu Ba)가 청류에 팔려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자결하려던 튀 끼에우를 최선을 다해서 살린 것과 박 바(Bac Ba)가 자기 손자인 박 하잉(Bac Hanh)과 모계를 꾸며 튀 끼에우가 두번째 청류에 팔려가게 한 것도 같은 이유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튀 끼에우의 재색으로부터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¹¹⁹알책, 90-91쪽.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봉건사회에서 산 여성이 개별 개인의 사랑과 행복을 추구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것은 바로 봉건사회의 제도였다고 볼 수 있다. 봉건사회에서 여성을 보호해주는 법이 없어서 그들이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거나 지킬 길이 없었다. 봉건사회가 쇠퇴해가는 길에 나갈수록 여성의 인생이 비참해진다. 그런데 짓밟을수록 인권, 특히 인간으로서의 개별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에 대한 그들의 의식이 상승한다.

2.2. 인권에 대한 인식

춘향과 튀 끼에우의 인생을 통해 <열녀춘향수절가>와 <똥 쓰엉 떼 타잉>은 인권의 문제를 어느 정도 다루는데 인간으로서의 행복 추구의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사는 권리의 두 방면에서 나타난다.

2.2.1. 인간으로서의 행복 추구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행복이란 무엇인지 사람마다 정의가 조금씩 다를 것 같지만 젊은이들에게 행복은 마음대로 연애·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무런 장애를 겪지 않고 마음대로 연애·사랑할 수 있었던 사람은 드물다. 특히, 동방의 봉건사회에서 살았던 젊은이의 경우 연애·사랑하면서 온갖 장애를 겪을 수 밖에만 없었다. 그들이 어떻게 사랑했는지 어떤 장애를 겪었는지 그 장애를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한 변화 과정을 문학작품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흥미로운 것이다. 본고에서 <열녀춘향수절가>와 <똥 쓰엉 떼 타잉>를 통해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가. 남녀의 연애·사랑

<열녀춘향수절가>와 <똥 쓰엉 떼 타잉>의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주제는 남녀의 연애·사랑이다. 두 작품의 여성 주인공인 춘향과 튀 끼에우가 남성 주인공을 따라 수동적으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연애·사랑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고 할 수 있다. 처음에 광한루에서 만날 때 춘향이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이도령에게 갔는데 춘매가 잠깐 다녀오라고 하기 전에 이미 갈 마음이 있다. 튀 끼에우도 봄나들이 갔다오는 길에 우연히 김 쩡을 만날 때부터 김 쩡에 마음이 있다.

지는 해는 슬픈 심사를 돋우는 듯한데,

객(客)은 말에 오르고 그녀의 눈길은 살며시 그를 좇네.¹²⁰

그리고 집에 들어와도 계속 김 쩡의 생각을 한다. 튀 끼에우가 김 쩡과 함께 연애하는 것은 봉건사회의 예절에 얽매이지 않고 완전히 마음이 가르쳐주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부모와 동생들이 외조부모 댁에 간 것을 틈타고 김 쩡에게 가거나 김 쩡 집에서

¹²⁰앞책, 29쪽.

돌아왔는데 부모와 동생들이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뒤 끼에우는

¹²¹앞책, 29쪽.

“한밤중에 종종걸음으로 곧장 뜰로 건너” 김 쩡한테 다시 간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튀 끼에우의 이러한 행위가 튀 끼에우의 속마음과 김 쩡을 위한 열렬한 사랑을 잘 알려준다.

“우연히 그를 만난 것은 어떤 일일까?

모르겠네, 백년의 인연이 있어서일까?”¹²¹

나. 남녀의 연애·사랑의 장애

그런데 가장 열렬하게 연애하면서도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겪어야 하고 말았다. 이도령은 아버지가 승직했기 때문에 서울에 함께 올라가야 되고 김 쩡은 숙부의 상(喪) 때문에 리에우 즈엉 (Lieu Duong)에 가야 된다. 이렇게 보면 그들의 연애·사랑에 장애가 된 것은 이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복잡하다. 만약에 이도령이 춘향이 가르쳐주는 대로 한다면 이도령과 춘향이 이별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이별해야 했다. 그 이유는 이도령과 춘향의 신분 차이이다. 인연을 맺었을 때 이도령이 신분 차이에 상관없었는데 춘향을 데리려고 하는 데 신분 차이가 큰 장애가 된 것을 알게 되었다. 만약에 이도령이 춘향을 데리고 간다면 화방작첩한 연유로 그의 가문에 폐단이 생길 수도 있고 그의 앞길이 막힐 수도 있을 가능성이 크다. 춘향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롭게 할 수 없으니까 이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춘향과 이도령의 연애·사랑에 장애가 된 것은 봉건사회의 신분제도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춘향과 마찬가지로 튀 끼에우가 김 쩡과의 이별도 불가피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김 쩡이 리에우 즈엉에 가지 않았으면 튀 끼에우가 몸을 팔아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그 가능성이 있지만 튀 끼에우와 김 쩡의 15년간 이별은 리에우 즈엉에 가서 숙부의 상을 입은 것에만 기인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튀 끼에우의 아버지와 동생이 누명을 쓰지 않았거나 관장이 공정하게 사무를 처리했다면 그녀의 아버지와 동생이 누명을 벗었을 수 있으며 끼에우가 몸을 팔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튀 끼에우와 김 쩡의 연애·사랑에 장애가 된 것은 쇠퇴해가는 봉건사회가 안겨있는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연애·사랑의 장애의 극복

그런데 <열녀춘향수절가>와 <뎐 쩡 떼 타잉>이 이야기해준 것처럼 결국 그들이 장애를 극복해서 자기들이 늘 간직하는 사랑을 지켜낼 수 있었다. 춘향은 죽음을 무릅쓰고 수절해서 자기 사랑을 지켜낸다. 이도령도 자기 계급의 장벽을 무너뜨려 자기 사랑을 지켜낸다. 결국 두 사람이 신분의 장벽을 무너뜨려 부부(夫婦)로서 서로를 결합할 수 있었다. 춘향과 이도령이 서로의 믿음과 이해 그리고 투쟁적 의지로 자기 사랑의

¹²¹알책, 30쪽.

장애를 극복했다고 할 수 있다. 서로의 믿음과 이해 그리고 투쟁적 의지는 바로 두 사람의

¹²²앞 책, 30쪽.

사랑을 보증해주는 것이다.

춘향과 달리 튀 끼에우는 ‘정 (情)’과 ‘효 (孝)’ 둘 중의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경우에 처했다. 그녀는 김 쟁과의 맹약 (盟約)을 지킬 길이 없어서 여동생인 튀 번 (Thuy Van)에게 부탁해놓고 풍진 (風塵)의 길에 몸을 던져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청루에도 두 번이나 팔려갔고 비녀도 두 번이나 되었고 남의 첩도 되었고 남의 처도 되었고 또 두 번이나 궁지¹²²에 빠져서 자결하기로 했다. 그녀에게 자기가 간직했던 사랑을 지켜낼 길이 막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이 간직했던 사랑이 손상하지 않게 하는 길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녀의 사랑을 지킬 선택에 김 쟁의 찬양을 얻을 수 있다. 김 쟁도 그녀와의 15년간 이별에 불구하고 늘 그녀를 생각하며 찾아내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다시 만날 때 그녀의 오욕된 신세를 알면서도 그녀를 위한 사랑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튀 끼에우와 김 쟁이 서로와의 사랑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서로의 신뢰와 이해심과 존경심이라고 할 수 있다. 서로의 신뢰와 이해심과 존경심은 바로 두 사람의 사랑 보증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튀 끼에우와 김 쟁은 서로에 대하여 신뢰하고 이해하고 존경할 수 있는 데에 정절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중요한 역할이 있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된다. 김 쟁과 혼인을 올리라고 가족들이 권하기에 튀 끼에우가 거절했을 때 김 쟁이 하는 말과 혼례를 올린 후 튀 끼에우와 김 쟁과의 대화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자고로 부녀의 도리 가운데,
저 정조 (貞操)에는 여러 양상이 있는 것이라오.
때로는 변 (變)도 있고 때로는 상 (常)도 있는 것이오,
[변고가 있을 경우] 권 (權)을 따르는 것이지 어찌 상 (常)한길만 옳겠소?
그대는 효 (孝)를 가지고 정 (貞)을 삼았으니,
어떤 먼지가 그 몸을 더럽힐 수 있단 말이오?”

취교가 말하네, “저는 어쩔 수 없이 되어버렸어요.
망가진 몸인데 무얼 더 바라겠어요!
[그렇지만] 그대의 옛사람에 대한 의 (義)와 마음에 새긴 정 (情)을 생각해서,
[그대의] 바람을 좇아 조금이나마 창수 (唱隨)하려는 거지요.
마음속으로는 참으로 부끄러웠으니,
후안무치 (厚顏無恥)를 차마 두고 볼 수 없어요!

¹²²첫번째는 자기가 청루에 팔려온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며 두번째는 조정이 상대하기 힘든 정도로 용락이 있는 봉기군 우두머리였던 자기 남편 뜨하이 (Tu Hai)에게 호튼히엔 (Ho Ton Hien)과 투항하도록 권해서 뜨하이

가호똥히엔에게 죽이게되고 튀끼에 우자신도호똥히엔에게 욱보았을 때이다.

그런데 만일 사랑이 곁에서 그친다면,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들어 그대를 볼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고 만일 남들 하듯이 한다면,
 땅바닥에서 [다된] 향(香)을 줍고 늦은 계절에 [시든] 꽃을 겪는 격이지요.
 또한 추하고 우스운 일이니,
 정(情)은 무슨 정이겠어요, 서로 원수가 되고 말 거예요.
 그대가 저를 사랑하면 그만큼 저는 그대에게 부끄러울 것이니,
 서로 사랑하는 것이 도리어 서로를 저버리는 것이지요!
 만약 가문의 후계를 생각한다면, 동생이
 있으니 제가 필요할 건 없지요.
 보잘것없이 남은 정절(貞節)이기는 해도,
 굳게 지키지 않고서 짓밟아 부수어서야 되겠어요!
 여전히 은혜(恩愛)가 넘치는데,
 시든 꽃을 헤치며 놀아서 좋을 것이 뭐겠어요?”
 김중이 말하네, “굳은 맹세로 맺어졌지만,
 돌연 물 속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처럼 헤어지고 말았소.
 오랫동안 유락(流落)하는 그대 때문에 상심했으며,
 무거운 맹세를 생각하며 또 많이도 가슴 아팠다오.
 사랑했기에 생사를 돌보지 않고 [찾았고],
 이제 서로 만났고 여전히 깊은 정이 남아 있소.
 봄날 버들가지는 여전히 푸른데도,
 어찌하여 은혜(恩愛)를 끊으려고 한단 말이오?
 명경은 조금도 먼지 끼지 않았고,
 [그대의] 분명한 말을 들으니 존중하는 마음 더하게 되오.
 오랫동안 바다 속에 빠진 바늘을 [찾듯 그대를] 찾은 것은,
 금석(金石) 같은 약속 때문이었지 화월(花月)을 찾고자 함이었겠소?
 한 집에 다시 모일 줄 누가 알았겠소,
 어찌 동금(同衾)해야만 금슬(琴瑟)이 되는 것이겠소.”¹²³
 위에서 분석한 것처럼 춘향과 이도령 그리고 튀 끼에우와 김 쩡의 사랑을
 보증해주고 온갖 장애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준 것은 서로의 신뢰와 이해심과 존경심임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다.

2.2.2. 인간으로서의 사는 권리를 위한 투쟁

¹²³앞 책, 265-266쪽.

그런데 개별 개인을 존중하지 않았던 봉건사회에서 산 그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격렬한, 때로는 목숨까지 위협할 만한 투쟁을 벌여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춘향이 (일부종사의) 지향대로 살기 위해서 봉건 세력을 대표해주는 변학도와 치명(致命)한 투쟁을 겪어냈다. 이도령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춘향은 죽음을 무릅쓰고 수청 들라고 변학도가 설득함에 대담하게 응대한다.

사또 우어曰, 「美哉 美哉 계집로다. 네가 眞正 烈女로다. 네 貞節 굳은 마음 어찌 그리 어여쁘냐. 當然한 말이로다. 그러나 李 秀才는 京城 士大夫의 子弟로서 名門貴族 사위가 되었으니, 一時 사랑으로 잠깐 路柳牆花하던 너를 一分 생각하겠느냐. 너는 根本 節行 있어 專守一節하였다가 紅顏이 落照되고 白髮이 亂垂하면 無情歲月若流波를 歎息할 제, 불쌍코 可憐한 게 너 아니면 누가 其라. 守節한들 烈女 褒揚 누가 하랴. 그는 다 버려두고 네 골 官長에게 매임이 옳으나, 童子놈에게 매임이 옳으나, 네가 말을 좀 하여라.」 춘향이 여짜오되, 「忠臣不事二君이요, 烈不更二夫節을 본받고자 하옵는데, 수차 분부 이러하니 生不如死이옵고, 烈不更二夫오니 處分대로 하옵소서.」¹²⁴

當初에 李秀才 만날 때에 泰山, 西海 굳은 마음 小妾의 一心貞節 猛賁 같은 勇猛인들 빼어내지 못할 터요, 蘇秦 張儀 口辯인들 첩의 마음 옮겨 가지 못할 터요, 孔明先生 높은 才操 東南風은 빌었으되, 一片丹心 소녀 마음 屈伏치 못하리라. 箕山의 許由는 不足受堯舉薦하고, 西山의 伯 叔 양인은 不食周粟 하였으니, 萬一 許由 없었으면 高蹈之事 누가 하며, 萬一 伯夷 叔齊 없었으면 亂臣賊子 많으리라. 妾身이 비록 천한 계집인들 許由 伯을 모르리까. 사람의 첩이 되어 背夫棄家하는 法이 베풀하는 官長님네 亡國負主 같사오니 처분대로 하옵소서.」¹²⁵

변학도의 수청 요청에 완강하게 항거하는 춘향의 행위는 바로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봉건사회의 제도와 그 제도를 지지하며 유지하는 세력을 반항하는 것이다. 어떤 방면에서 보면 춘향의 이러한 반항은 여성에게 인간으로서의 사는 권리를 돌려달라는 투쟁이라고 볼 수 있다.

춘향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 사는 권리를 위한 튀 끼에우의 투쟁도 지난하다. 튀 끼에우가 대면해야 하는 세력이 현저하지 않다. 돈의 부정적인 힘은 바로 튀 끼에우가 가장 당면하기 힘든 세력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3. 봉건사회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고발

<열녀춘향수절가>와 <뎐 쓰영 뎐 타잉>는 춘향과 튀 끼에우를 통해서 봉건 사회의 질서에 반항하는 목소리다. 만약에 춘향이 자신의 행복에 대하여 의식이 없고 기존 질서에 복종했다면 세간 지옥에 빠져들 가능성이 없었을 텐데 춘향은 무엇이 행복의

¹²⁴구자균교주, <열녀춘향수절가>, 한국고전문학대계 10 『춘향전』, 민중서관, 1970, 135-137 쪽.

¹²⁵구자균교주, 앞책, 137-139 쪽.

진정한 가치인지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기존 질서에 반항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봉건사회는 그러한 춘향을 용납하지 못하고 춘향의 지향을 꺾어내려고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시도해 보았다. <열녀춘향수절가>와 마찬가지로 <뎡 쓰엉 떼 타잉>도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사는 권리를 짓밟는 봉건사회와 돈의 부정적인 힘을 고발한다.

2.4. 생활의 철학

<열녀춘향수절가>를 춘향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수절하면 여성의 도리일 뿐만 아니라 복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사실¹²⁶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봉건사회의 질서를 위한 보수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춘향이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고 수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살리기 위한 행위라서 봉건 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절과 비해 내용이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는 선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일반민중의 소망이 반영된다고 봐야 타당하다. 또는 춘향이 변학도에게 항거해서 수절하는 과정을 통해 마음이 중요하다는 강조를 알게 된다. 한결같은 춘향의 마음은 융통성이 없고 포악한 변학도를 이겨냈다. 변학도에 인해 죽음을 당하더라도 춘향은 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춘향이 민중으로부터 공감과 찬양을 얻었고 변학도는 민중으로 하여금 반감과 비판을 일으키게 했기 때문이다.

<열녀춘향수절가>와 마찬가지로 <뎡 쓰엉 떼 타잉>은 튀 끼에우의 인생을 통해서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튀 끼에우가 온갖 세상풍진을 겪었는데 세상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찬양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튀 끼에우의 마음 때문이다. 튀 끼에우가 항상 도리를 잘 지키고 오탁한 환경에서 마음을 더럽히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

3. 결론

위에서 분석한 것처럼 <열녀춘향수절가>와 <뎡 쓰엉 떼 타잉>이 수절과 여성의 인권에 대한 인식 그리고 봉건사회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고발에 유사점이 보이는데 그것은 비슷한 역사적 문화적 환경에서 산 작자에 의해 쓰여진 작품이기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시대의 한국사회와 베트남사회 속에 안겨있는 문제도 다 똑같지는 않고 그 문제에 대한 작자의 관심과 의식도 다 똑같지는 않다. <열녀춘향수절가>의 작자는 신분 차이와 신분 타파 및 공리(公理)의 실현에 관심을 두었는데 <뎡 쓰엉 떼 타잉>의 작자는 돈의 부정적인 힘과 그것에 인해 비롯된 온갖 문제들에 관심을 두었다. 그런데 두 작품의 공통된 점은 봉건사회의 신분이 천한 여성과 그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배려라고 할 수 있다.

¹²⁶조동일, 「갈등에서 본 춘향전의 주제」, 김병국·김대행김진영정병헌편, 『춘향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광학술 자료, 1994, 참조.

참고자료

- Le Xuan Lit (2007), 200 nam nghien cuu binh luan Truyen Kieu, Nha xuất ban Giao duc.
- Nguyen Thach Giang phien khao (2005), Nguyen Du, Doan truong tan thanh, Nha xuất ban van hoa thông tin.
- Phan Ngoc (2007), Tim hieu phong cach Nguyen Du trong Truyen Kieu, Nha xuất ban Giao duc.
- Tran Dinh Su (2007), Thi phap Truyen Kieu, Nha xuất ban Giao duc.
- Tran Nho Thin (2000), Van hoc trung dai Viet Nam duoi cai nhin van hoa, Nha xuất ban Giao Duc.
- 구자균 (1970), 「열녀춘향수전가」, 『춘향전』 한국고전문학대계10, 민중서관.
- 김동욱 (1976), 『춘향전 연구』, 연세대학교출판부.
- 김동욱·김태준·설성경 (1979), 『춘향전 비교연구』, 삼영사.
- 김종철 (1996), 『판소리사 연구』, 역사비평사.
- 김태준 (1990), 「춘향전의 현대적 해석」, 『증보 조선소설사』.
- 김현양 (1999), 「옥중화의 계보」, 『동방고전문학연구』 1, 동방고전문학회.
- 박희병 (1986), 「판소리에 나타난 현실의식」, 『한국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 설성경 (1983), 「춘향전 주제의 특성」, 『한국문학연구방법론』, 민족문화사.
- 설성경 (1986), 「춘향전 주제 이해의 방법」, 설성경 박태상, 『고소설의 구조와 의미』, 세문사.
- 설성경 (1991), 「19세기형 개작장편 남원고사에 나타난 생활문화의 형상화」, 『한국고소설의 본질』, 국학자료원.
- 설성경 (1994), 『춘향전의 통사적 연구』, 서광학술자료사.
- 신동훈 (1995), 「평민 독자의 입장에서 본 춘향전의 주제」, 『판소리연구』 6.
- 신동훈 (1997), 「춘향전 주제의식의 역사적 변모 양상」, 『판소리연구』 8.
- 이상태 (1973), 「고대소설의 사회와 인간」, 『한국사상대계 1』, 성균관대 대동문학연구원.
- 임성래 (1991), 「춘향전의 구성과 주제」, 『열상고전연구 4』, 열상고전연구회.
- 자하영 (1986), 「춘향전의 주제」, 『한국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 자하영 (1991), 「춘향전 주제론 재고」, 한국고소설학회 편, 『춘향전의 종합적 고찰』, 아세아문화사.
- 조동일 (1994), 「갈등에서 본 춘향전의 주제」, 김병국·김대행 김진영 정병헌 편, 『춘향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광학술자료.
- 조윤제 (1988), 「춘향전 이본고」 1,2, 『도남 조윤제 전집』 6, 태학사.

정출현 (1993), 「춘향전의 인물형상과 작중역할의 현실주의적 성격」, 『판소리 연구』 4, 판소리연구학회.

황패강 (1991), 「춘향전 연구」, 한국고소설학회 편, 『춘향전의 종합적 고찰』.